

'유명'과 '무명'으로 구분해야 하는가

July 3, 2016 | 문인영 기자



▲ '유명한 무명 (wellknown unknown)' 설치전경 / 사진제공 =국제갤러리

그룹전 '유명한 무명 (wellknown unknown)'이 지난 달 28일부터 국제갤러리 1, 2관에서 열리고 있다.

참여작가로는 김영나, 김희천, 남화연, 베리핑즈, 오민, 이윤이, EH 등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동시대 미술의 촉망받는 작가들이 참여했다.

그룹전 '유명한 무명'은 빠르게 변화하는 21세기를 살고있는 현 세대에 출현과 소멸, 등장과 은둔, 유명과 무명의 가치에 대한 질문들을 제시한다.

미디어, 설치, 디자인,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업들이 소개되는 이번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열린다.